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5월 28일(금)
...(음력 4월 17일)...
Пятница
28 мая 2021г.
№ 21 (1193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28일은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날이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건된 국경수비대의 공원을 개장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 건축 전시회 개최

5월 25일 - 2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췌'비즈니스센터 강당에서 제19회 '사할린 건축 엑스포' 특별 박람회가 열렸다.

'사할린 건축 엑스포'는 사할린 종합건축과 인접 산업의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통으로서 사할린주와 첼랴빈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25개 건설업체들이 건축 관련 장비, 기술,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전시했다. 전람회를 통해 관람객들은 개인주택 건설의 다양한 기술을 비롯해 무엇으로 주택을 건축할 것인지, 어떤 재료를 이용해 건축을 마무리할 것인지, 인접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행사는 건축 설계자, 공공 주택 사업체와 인접 산업의 대표자들과 개인 건축자들을 위해 진행되었다. 5월 25일에는 '사할린과 쿠릴의 종합건설 : 새로운 경제적 여건에서 개발의 현대성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렸다.

올해 콘퍼런스의 주요 주제는 사할린주 부총재가 진행한 특별 정기회의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있어 산업부문 간 입안 목록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에게는 건축의 예산 규정 및 가격 책정, 주요 수리, 도시 지역에서 시 녹화 조성의 지방자치체 규정 등이 흥미를 끌었다.

사할린주 75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 시작

사할린주가 지역 75주년 기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할린 주 75주년은 내년이지만 일련의 행사들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행사의 준비 조직은 주지사 발레리 리마렌코가 주재한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단순히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할린 지역의 탄생일은 역사에 깊이 몰입하고 미래에 대한 열망을 담아 의미있게 기념해야 한다. 한 해가 특별한 해가 될 것이므로 각 부처는 독자적으로 기획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편안한 주택, 도로의 평준화, 의료 서비스 확대, 도시 및 지역 정비 등이 사할린 지역에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주지사가 전했다.

사할린주 75주년 기념행

사는 사회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일에 대비하여, 자원 봉사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당하고, 관심을 가진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이 대규모 작업에 동참하도록 하며, 러시아 전체 포럼 <오스트로바>의 참가자인 젊은이들도 이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위원들은 사할린과 쿠릴의 해방을 위해 2천 명 이상의 소비에트 장병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할린주 정부와 사회계가 주도하여 행사를 준비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9월 3일 '승리의 날'은 러시아의 군사적 영광의 날인 만큼 중요한 날이다.

지역 75주년을 기념해 이미 세 가지 대형 행사가 제안됐다. 한 예로 가족 운동회, '노력하는 가문' 경연에 대한 계획들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며 대대

로 살아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 다른 기획인 '사할린의 골목'은 다양한 역사 기간 동안 사할린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75명의 사할린 주민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고안되었다. 사할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수 주민 후보를 선정한다.

회의 기간에는 대회를 열어 사할린주의 지역가를 선택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주지사는 이 계획을 지지했다.

기념일을 맞아 '사할린 주 75주년' 기념 로고가 소개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 약 5,000명이 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는 전쟁 참전용사와 후방 노동 참전자,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킨 오늘날의 근로자들, 그리고 과학, 창의력, 스포츠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할린주 정부 정보정책국에서 전했다.

단신

사할린에서 뵈체고르스크 대지진 희생자 참배

뵈체고르스크 대지진 26주기를 추모하여 5월 28일 낮 12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철도역 광장에 있는 뵈체고르스크 지진 희생자 추모비에서 헌화식을 갖는다.

행사에는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해 지진 피해자와 희생자의 가족, 지역 및 시 정부 관계자, 사회단체 대표, 시민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1995년 5월 28일 밤에 대지진이 일어나 뵈체고르스크 주민 3000여 명 중 2000여 명이 사망하고 뵈체고르스크 마을에 거의 모든 집이 파괴되었다. 뵈체고르스크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 비극의 현장에는 추모비와 예배당이 서 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해마다 이곳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찾아온다.

사할린 수산업체들 24만 1천 톤의 해양생물자원 획득

사할린주의 수산업체들이 연초부터 24만978톤의 해양생물자원을 획득했다.

수산업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어획량의 절반 이상이 명태다. 명태 어획량은 146,215톤에 달하며 또한 이 기간에 태평양 청어를 33,363톤 어획했다.

수산청 정보에 따르면 대구의 총어획량은 1만,598톤이며, 가자미 2,826톤, 이명수 6,729톤, 나가미 1만592톤을 어획했다. 연초부터 대게 조업으로 4,715톤 어획, 새우는 2,618톤, 바다 가리비 5,613톤을 채취했다. 서쪽 해안의 해조류 채취량은 500톤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사할린의 수산업체들이 대량의 해조류를 채취해 해외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냉장, 냉동, 가공된 어류 및 해조류는 사할린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극동지역 항공사, 전략회의 소집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극동지역 항공사 그룹의 첫 전략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극동지역 항공사 그룹의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사 간 상호작용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러시아 대통령이 정한 극동지역 접근성 향상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3일간 회의를 통해 항공사 '오로라', '야쿠치아', '북극 항공', '하바롭스크 항공', '캄차트카 항공사', '추코트 아비야'는 효과적인 공동 운영과 안전적 운항 보장을 위한 통합 방식의 계획과 핵심 권한에 대해 결정했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49루블리 3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어머님을 본받아 자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할린주 여성회 유영희 부회장과 인터뷰

식료·잡화 도매사업을 하는 유영희 (본명 우영희, 러어명 나탈리야 야코블레브나) 씨는 몇 년째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자선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조용히, 묵묵히 하는 스타일이다. 조명을 받는 것을 싫어하신다. 올해부터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지난 4월에 유영희 씨가 사할린주 여성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출생과 전공, 직업이 궁금합니다.

- 1957년에 마카로브에서 태어났고 8형제 중 막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그 당시 큰 오빠만 결혼했었고 나머지 7명은 어머니 곁에 있었죠.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힘든 막노동을 하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고 무국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 받는 회계교육과정(8개월 코스)을 마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갔지요. 교육과정도 무사히 수료하고 이곳에서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 욕심이 있어서 늦게라도 사할린 산림기술전문학교 회계과에 입학하여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 두 아이 어머니로서 통신 수업이 아닌, 매일 수업에 나가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텐데도 최

우등으로 공부하셨으니 대단합니다.

- 남편이 응원하고,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가능한 거였죠. 힘들긴 좀 힘들었지요. 수업은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녁 차리느라고 정신없었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공부를 밤 2-3시까지 했거든요.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도 있고 하니 더더욱 열심히 해야 했죠. 제가 공부를 잘 하니 교수들이 계속 대학 공부를 하라는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공부하고 싶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 도매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급식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90년대 경제 위기 속에 작은 장사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남편이랑 함께 비즈니스를 하게 됐죠. 평소 5일간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식품 도매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난에 시달리며 살던 시기가 있었죠. 시내버스 요금을 낼 수도 없는 날도 있었고, 자기 집이 없어서 네 식구가 형편없는 임대 주택을 찾아 많이 옮겨다니며 살았죠. 게다가 유영희 씨 남편이 심각한 병에 걸려 식구 모두가 죽을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도 남편은 가족을 위해 막노동을 비롯해 여러 잡일을 했다. 건설 현장에 나가 일을 해서 국가에서 3칸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자기 집이 생겼다고 유영희 씨의 식구들은 너무도 기뻐했다. 그때가 1989년도였다.

- 부회장님께서 자선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한인사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 우리는 엄청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엄마를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사람의 흉을 본 적이 없으세요.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조용히 도와주는 스타일이셨어요. 저희 언니(고(우)영순 씨)가 마카로브에서 한인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저희가 처음 음력설에 어르신들에게 식품 선물세트를 나눠드렸어요. 어머니를 생각해서 시작했죠. 어머니는 2015년에 돌아가셨지만 마카로브의 어르신들에게 해마다 음력설에는 지속적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것을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라고 믿어요. 조금씩 한인회를 도와주다가 그리고 손자들도 다 컸으니 한인사회에 시간과 힘을 더 쏟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여성회에 가입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여성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0+>를

협의 야외 놀이를 담당했고 이번 토요일 있을 <60+>모임도 재미있게 준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유영희 씨를 몇 년 동안 지켜보며 그녀는 크게 떠들썩한 분은 아니었다. 말없이 추진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높은 사람임을 보았다. 자기가 무슨 일을 맡든지 쉽고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 일하는 성품이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뿐이다. 한인들을 위한 그의 성의를 누군가 의혹의 눈길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을 다칠까봐 걱정한다.

- 남편은 선생님께서 하는 봉사사업, 사회 활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를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자선도 하고 직접 많은 활동도 합니다.

- 부회장님께서는 어떤 성품이 마음에 드세요?

- 착함, 예의 바름, 관대함(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 좋아하시는 슬로건 또는 표현이 있으신지요?

- 저는 «배려, 도움»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배려하고 뒷받침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요. 사실 연말연시가 되면 웬지 독거노인, 부모 없는 아이들이 더 가여워 보이고 스스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렇고 제 딸들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이걸 «유전»으로 남기셨나 봐요. 딸들도 도움



이 필요한 사람을 가만히 보지 못해요. 제 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인의 딸에게 그 애가 어른이 되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매월 만오천 루블씩씩 보낸 적도 있습니다. 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속 깊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 좋아하는 색깔과 계절은요?

- 계절은 겨울을 좋아하고, 색깔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 어떤 책들을 즐겨 읽으세요?

- 요즘은 명언 수집 서적을 자주 보고 있어요. 잠자기 전에 읽기 좋아해요. 이걸 읽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 일도 하고 싶어져요.

- 여기는 어떻게 보내기 좋아하십니까?

- 저에게 가족이 매우 소중해요.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딸 둘이 있고 손자 둘, 손녀 하나가 있는데 손자 하나와 손녀는 지금 캐나다에 있어서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야외로 나가는 걸 즐기는 편입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계획과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러시아의 10개 절경 중 3개가 사할린 섬들의 비경

러시아 지리학회는 <가장 아름다운 지역> 사진대회 결승 진출자들의 작품을 발표했다. 가장 명성 높은 '빼이자쥬(풍경)' 부문에서 사할린의 풍경 3점이 올랐다.

사할린 섬의 안개 낀 아나와 등대(알렉산드르 우시작), 쿠릴 양키차 섬의 '고래의 미소' (예브게니 보리소브 작), 오테코탄 섬의 크레니진 화산 폭발의 '비상' 풍경(알렉산드르 쿠크리노프 작)이다.

18개 국가에서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총 6만 5천 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대회는 5월 26일까지 인기상 선정은 온라인 공개투표를 진행하여 6월 2일에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부문 우승자에게는 상금 25만 루블리를 수여한다.

<가장 아름다운 지역>은 러시아에서 상당한 대규모의 사진대회로 알려져 있다. 6년간 50만 점 이상의 사진작들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다. 이번에도 예년과 같이 많은 새로운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다. 우선 6,039명의 참가자들이 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 중 1,116명이 학생들이다.

기획 참가를 위해서는 고가의 사진기기가 필요치 않다. 주요 규정은 모든 사진작들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트리 из десяти лучших пейзажей России сняты на остров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опубликовало работы финалистов конкурса "Самая красивая страна". В самой престижной номинации "Пейзаж" в финал вышли три островных фото: туманный маяк Анива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автор Александр Усик), "Улыбка кита" с Курильского острова Янкича (автор Евгений Бо-

рисов) и пейзаж с "окрылённым" вулканом Креницына на острове Онекотан (автор Александр Кукиринов).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шес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18 стран мир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ни прислали более 65 тысяч работ. Итоги подведут 2 июня, а до 26 мая было открыто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Призами для победителей в номинациях станут премии в размере 250 тысяч рублей.

"Самая красивая страна" по праву считается наи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м российским фотоконкурсом. За шесть лет победу в нём оспаривали более полумиллиона снимков. В этот раз, как и в прошлые годы, он привлёк много новых авторов. Впервые на суд жюри свои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ли 6039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них — 1116 детей.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е не обязательна дорогая фототехника. Главное правило — все снимки должны быть сдела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주 향토 박물관에서 강연 및 행사 개최

5월 28일, 11시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에서 '흡연 및 간접 흡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모임에 초대한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공중보건 및 의료 예방센터의 예방의학과 전문가가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이 흡연하는 동안 심혈관, 폐 및 종양 관련 25개 이상의 질환들이 악화된다고 보고했다. 다년간 영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가운데 흡연으로 심근 경색증, 폐암과 관련해 심각한 과학적 증거가 밝혀졌다.

해마다 흡연 습성의 결과로 전 세계 6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 중 60만이 간접 흡연자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4천420만 명(인구의 39.1%)이 흡연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의료예방센터와 박물관이 '사할린 주민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란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개최한다. 이날 10시 - 13시까지 <나의 건강> 진료 행사가 열리며, 박물관 방문객들은 고혈압, 안압 측정, 혈액 산소포화도 측정, 폐의 탄산

가스 농도 측정, 포도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 등 초음파 검사와 간단한 의료 예방 상담을 받게 된다.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оведет лекцию и акцию ко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без табака

28 мая в 11:00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на встречу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человека окружающего табачного дыма и последствия потребления табака". Ее проведет врач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ВОЗ сообщает о более чем 25 заболеваниях, течение которых ухудшается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курения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е, лёгочные и онколог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Серьёзные научн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связи рака лёгких и инфаркта миокарда с курением были приведены в многолетнем исследовании британских учёных. Последствия вредной привычки ежегодно приводят к смерти около 6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в мире (из них 600 тысяч пассивных курильщиков). По статистике, в России курят около 44,2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39,1% населения).

Встречи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музея и центра "Будь всегда здоров, житель островов!".

В этот же день с 10:00 до 13:00 там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медицинская площадка "Мое здоровье". Посетителям музея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ойти скринингов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змерение артериального и внутриглазного давления; измерение насыщения кислородом крови; определение уровня угарного газа в легких; определение общего холестерина и глюкозы; кратко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е медицинско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사할린의 청소년들을 '환상의 박람회'로 초대

6월 1일(화) 사할린 영화오락협회는 지역 고문서문화부의 지원 아래 세계 아동보호의 날 일환으로 아동을 위한 '환상의 박람회: 일곱 해양의 선장' 축하행사를 조성한다.

(8면에 계속)

사할린 참가자, '델픽' 게임에서 수상

델픽 게임(Delphic Games 예술경연대회)에 러시아 연방 65개 행정자치체에서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음악과 춤, 미용과 요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28개 부문에서 '최고'라는 칭호를 증명하여 얻으려고 한 자리에 모였다.

코로나 19의 역학 상황으로 오랜 휴지(休止)기간 후 참가자들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듯 생기 넘치는 무대에 오르길 기다렸다. 이번 델픽 게임은 페르미에서 열렸다.

델픽 게임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에 벌어졌던 문화예술 제전으로 기원전 582년에 시작되었으나 잠식되었다가 1927년에 재개되어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경연 분야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언어예술, 전통예술, 사회예술, 생태예술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4일간 사할린 출전자들을 그들의 친척과 교사와 친구들이 온 마음으로 응원했다. 수준 있는 경연에서 사할린의 재능 청년들은 대륙에서 거머쥔 상을 들고 돌아오기 위해 자신의 끼를 한껏 발휘하고, 예술적 잠재력을 활용했다. 그리고 기대와 걱정애 보상이 주어졌다.

'도라지' 한민족 무용단(〈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우아한 소녀들과 솜씨에 경쟁자들도 감탄했다. '벨리 로시(하얀 이슬)' 사할린 예술전문학교의 민속 앙상블은 러시아의 정신의 넓이와 움직임으로 사로잡았고, '즈베첸(5월)' 아동 민요 합창단은 아늑한 자연스러움으로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다. 아나와 예술학교의 낭독자들도 사할린의 무용인, 음악인, 합창단과 나란히 참가했다. 참가자들에게 있어 델픽 게임은 지속적인 전문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수업이자 촉진제가 되었다. 경연 결과 사할린의 대표단은 3개의 메달을 따고 돌아왔다.

'벨리 로시(하얀 이슬)' 사할린 예술전문학교의 민속 앙상블이 은메달을 획득, '즈베첸(5월)'에트노스 아



동예술학교의 아동 민속 합창단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아동음악학교의 클라리넷 연주자인 이반 디아첸코가 각각 동메달을 따냈으며, 특별상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도라지'무용단이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들에게 민족 전통을 찬란하게 구현함에 대한 특별상을 제정했다.

또한 미술 부문에서도 사할린 팀들은 전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 미술학교의 김미경 학생이 높은 전문성을 지닌 작품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델픽 게임의 폐막은 갈라쇼로 마무리되었다.

주민1인당 기초생활비 월 1만5천914루블리

2020년 사할린주 월평균 1인당 소득액은 예비자료에 따르면 6만35.8 루블리에 달해 2019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사회적 빈부격차는 여전히 크다. 가장 소득이 많은 주민 10%의 평균 소득액과 가장 소득이 낮은 주민10%의 소득액 격차(자금 지표)는 14.4배나 된다. 사할린주 전 주민의 총소득액의 1/3(29.6%)이 10%의 고소득액 주민의 수중에 집중돼 있다.

주민 1인당 기초생활비는 월 15,914 루블리며, 극동 연방관구에서 가장 기초생활비가 높은 곳은 추코트카 자치구가 월 23,417루블리, 캅차트카 변경은 월

21,319루블리, 마가단주는 20,629 루블리이다. 사할린주는 2019년과 같이 5위를 유지하고 있고, 2019년 대비 사할린의 빈곤층의 수는 2,300명이 줄어든 3만8천명 정도로 지역 전체 인구의 7.8%이다. 이는 극동 연방관구 중 수치가 가장 낮다.

러시아 평균 빈곤층의 수치는 12.1%이며 러시아 85개 행정자치지역 중 사할린 지역은 빈곤율이 낮은 순서로 상위 7위에 올라 있다. 상위에는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타타르스탄 공화국, 모스크바주와 벨로로즈주가 앞서 있다.

재외동포재단, 러시아·CIS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 강화

- 5.20.(목), 러시아·CIS 지역 한인회장 및 고려인협회장들과 '찾동' 행사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동포사회 주요 현안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5.20.(목) 러시아·CIS 지역 한인회장 및 고려인협회장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행사를 개최했다.

제8차 러시아·CIS 지역 '찾동'행사에는 노성준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조바실리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을 비롯한 18명의 전·현직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러시아·CIS 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고려인 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의료영사 파견 등 현안 및 요청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의 노성준 회장은 "찾아가는 동포재단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계기로 비대면이지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러시아·CIS



지역 동포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곤 이사장은 "러시아·CIS 지역은 재외동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 한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여 재외동포사회를 잘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러시아·CIS 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IN(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월레포럼 개최 안내

5월 사할린 포럼 안내

이번 월레포럼의 주제는 "소련의 남사할린 점령정책과 한인 귀환정책"입니다. 방일권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십니다.

사할린 문서보관소를 찾아다니며 사할린 한인들의 기록을 수집한 풍부한 경험과 사료들을 바탕으로 알찬 강의를 되리라 기대합니다.

사할린 월레포럼

일시 : 5월 31일(월) 저녁 7시(한국 시간)

주제 : "소련의 남사할린 점령정책과 한인 귀환정책"

발표 : 방일권 교수

참가신청은 5.31(월) 정오까지.

참가 신청 : <https://forms.gle/Xzg1caoBxXz47aP37>

강의는 ZOOM회의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시 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회차 참가신청하신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줌 링크 보내드립니다.

사할린 월레포럼

사할린 동포법이 시행되는 올해, 사할린 한인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성과 등을 함께 공부하면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할린 한인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며 향후 운동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http://bit.ly/사할린월레포럼>

KIN(지구촌동포연대)
전북대학교 고려인연구센터

기초식량 식품 소비 2020년 사할린주 주민의 월평균 1인당 기초식량 식품

2020년 가정경제 예산의 표본 산출 결과에 따르면 기초식량 식품에 대한 구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빵류 및 제빵류가 18.3%, 월평균 가구 1인당 1,448.9 루블리에 해당했으며, 채소 및 과채류는 10.9%로 증가해 1,149.5 루블리에 해당되었고 과일 및 열매류는 31.0%로 증가한 1,116.8루블리, 소비가 증가한 육류 및 육류 가공품은 12.0%로 2,830.8 루블리에 해당, 우유 및 유제품은 17.3% 증가해 월 1,335.0루블리에 달했다.

반면 생선 및 생선 가공품의 소비 지출은 감소해 2.9%로 687.4루블리였다.

월평균 1인당 기초식량 식품의 소비 동향이 불명확한 가운데 2020년 사할린주 주민의 제빵류 소비는 크게 늘어 월 1인당 7.5kg(2019년 - 7.3kg),

육류 및 육류 가공품은 8.5kg(2019년 - 7.9kg), 과일 및 열매류6.4kg(2019년 - 2.4kg), 설탕 및 제과류는 2.6kg(2019년 - 2.4kg), 우유와 유제품은 특히 소비가 늘어나18.6kg(2019년 - 16.9kg)에 해당됐다.

2020년에 생선 및 생선 가공품의 소비는 약간 줄어든 가운데 2.1kg(2019년 - 2.2kg), 채소 및 과채류는 7.1kg(2019년 - 7.2kg), 감자와 달걀의 월평균 1인당 소비량은 4.1kg과 19개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기초식량 식품 소비율은 주민의 소득물과 비례한다.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채소와 과채류, 과일 및 열매류,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우유와 유제품들과 달걀 소비량도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보다 2배나 소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награды Дельфийских игр

Юбилейные Дельфийские игры собрали под одной крышей почти две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из 65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ым предстояло доказать и отстоять свое право на звание "лучших" в 28 номинациях от музыкального и танцевального до парикмахерского и кулина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осле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ерыва, связанного с обостренн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участники, как глотка свежего воздуха, ждали возможности выйти на сцену вживую.

В этот раз Дельфийские игры проходили в Перми.

В течение 4 дней за островитян болели и переживали род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друзья. Серьезная конкуренция стала для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стимулом проявить все свое обаяние и задействовать весь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чтобы вернуться с большой земли с наградами. Ожидания и волнения оправдались.

Мастерством и грацией девчонок из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Доради" восхищались даже соперники.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Белые росы" покорила широтой и размахом русской души, а детский народный хор "Цветень" околдовал жюри своим задором и ребяческо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стью.

Наряду с танцорами, музыкантами и вокалистами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ляли чтецы из анив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Для них эти игры стали ценным уроком и стимулом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бщего зачета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ивезла домой три медали: серебряную —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Белые росы"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2 бронзовых — детский народный хор "Цветень", ДШИ "Этнос" и кларнетист Иван Дьяченко из ЦДМШ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ще одной значимой награды удостоились воспитанники ДШИ "Этнос",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Доради". Жюри учредило для них специальный диплом за яркое воплощ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Художники тоже внесли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общий зачет сахалинской команды. Ким Ми Ген, ученица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учила специальный диплом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исполнения.

Завершением юбилейных Дельфийских игр стал гала-концерт, сообщает СОРЦ.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встретился со спикером Нац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осква, 23 мая. В Красном зале Храма Христа Спасителя в Москве 22 мая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вятейшего Патриарха Московского и всея Руси Кирилла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Пён Соком.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Московского Патриархата.

Со стороны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во встрече участвовали: Патриарший экзарх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митрополит Сингапурский и Юго-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ий Сергей и сотрудник ОВЦС Д.И. Петровский.

Высокого гостя сопровождали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и Сок Пэ и супруга спикера Хан Мён Хи. Во встрече такж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Ф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Л.Э. Слуцкий.

Сердечно приветствуя председате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Пёна Сока, Святейший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у гостя останутся добр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т посещения Москвы,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как столицей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 и духовным центром.

Как отметил Предстоятель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течение большей части XX века в тогдашнем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религию запрещали и притесняли, уровень религиозности в народе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тем, что православная религиозная традиция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народа.

«Я могу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отметить, что как Россия, так и Корея — это страны с богатой духовной традицией и с историей добр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 констатировал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 Известен взаимный интерес, который питают наши народы друг к другу. Религиозность, которая присуща и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и российскому народу, в том числе определяет наши взгляды на человеческую мораль, на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полами, на отношение млад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 старшему.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религиозная традиция откладывает отпечаток и на социальную жизнь людей».

Святейший Владыка подчеркнул особую чувствительность двух народов к вопросам традиционной морали и признание им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читывать религиозный фактор в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Его Святейшество также коснулся истории присутствия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ак известно, появление Православия в Корею тесным образом связано с развитие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XIX и XX веке. Православная вера была принесена в Корею русскими православными миссионерами около 120 лет тому назад — уже в 1897 году там была учреждена Российская духовная миссия. «К сожалению, присутствие Православия в Корею стало неким заложником, жертвой той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которая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стала реальностью в наших отношениях, — отметил Святейший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 Именно из-за эт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русские православные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покинуть Корею. И в 1955 году храмы и все то, что было создано русскими православными людьми в Корею, перешло в юрисдикцию Константинопольского Патриархата. Но у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всегда сохранялся интерес к развитию религиозной жизни и к развитию Православия в Корею».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этого стало учре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й епархии, которая с 2019 года действует в составе Патриаршего Экзархата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являющегося наследником миссионерских трудов действовавшего с 1946 по 1954 год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ого Экзархата,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ходили и православные общины в Корею.

Святейший Владыка упомянул, что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сетил Корею в 1990 году, когда в этой стране проходила под эгидой Всемирного совета церквей конференция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мир и целостность творения». «Это был мой первый опыт общения с Кореей, и я храню самые теп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б этом опыте», — отметил он.

Через шестнадцать лет после этого, в 2006 году, Святейший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в то время возглавлявший Отдел внешних церковных связей, посети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освятил там первый православный храм.

Предстоятель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также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отметил помощь корейских христиан,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в трудный период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90-х годов в Свято-Троицкой Сергиевой лавре был создан полиграф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дал возможность независимо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печатать религиозную литературу.

«Хотел бы через Вас передать свои уважение и симпатию ко все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 народу очень трудолюбивому, хорошо организованному, достигшему очень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в экономике,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своей страны, — сказал Святейший Владыка. — Мы молимся, чтобы продолжалось поступательное развитие вашей страны и еще больше росло благополучие вашего народа».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за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 что считает большой честью для себя встретиться с Патриархом Московским и всея Руси Кириллом.

«Я знаю, что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является духовной основой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и вноси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обеспечение его сплоченности более тысячи лет. Церковь дает утешение, духов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народу России, особенно в нынешней трудной ситуации, вызванной пандемией», — сказал Пак Пён Сок. Он также особо упомянул миротворческую позицию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в том числе в вопросах обеспеч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объединения народа Кореи, а также ее участие в межрелигиозных диалогах.

В ходе беседы был обсужден широкий круг вопрос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в Южной Корею.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ередал Святейшему Патриарху Кириллу официальное приглашение посетить Южную Корею.

Текст и фото Службы коммуникации ОВЦС/ Патриархия.ru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2-е полугодие — 549 руб. 3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еуле проходят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облеме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На этой неделе в Сеуле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ходит серия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борьбе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Они предваряют глобальный саммит по изменению климата и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Партнёрство для зелёного роста и глобальных целей 2030», или P4G,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29-30 мая. Всего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зелёного будущего» с 24 по 28 мая пройдут десять мероприятий, к участникам которых обратятся известные учёные и экологические активис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науч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з 12 стран обсудят стратегии сокращения выбросов к 2030 году.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транслируются на YouTube.

Сон Ким - новый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он Ким,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омощни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ретаря США по делам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Тихого океана, назначен специ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жо Байден объявил о его назначении на этот пост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состоявшейся 21 мая. Сон Ким — американец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звестен как эксперт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Он был послом США в РК, глав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н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Назначение Сона Кима на пост, который оставался вакантным в течение четырёх месяцев,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сигнал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 том, что США готовы к диалогу.

Исполнилось 12 лет со дня смерти экс-президента РК Но Му Хёна

23 мая исполнилось 12 лет со дня смерти Но Му Хёна, который был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в 2003-2008 годах. Помин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на кладбище в деревне Понха-маиль в городе Кимхэ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церемонии был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Бу Гём,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Сон Ён Гиль,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им Ги Хён, старший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Ли Чхоль Хи, губернаторы ряда провинций, члены семьи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Ким Бу Гём отметил, что Но Му Хён стремился искоренить авторитаризм и регионализм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Нынешний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Мун Чжэ Ин, который много лет был другом Но Му Хёна, отправил цветы, которые были возложены на могилу.

Текущи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родлится с 24 мая по 13 июня

По указа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текущи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сохранится с 24 мая по 13 июн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ходят города Сеул и Инчхон, а также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в городах Пусане и Ульсане действует второй уровень, в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первый уровень, а в осталь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уровень 1,5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од запретом остаются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тренажёрные залы, караоке, крупные супермаркеты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до 22 часов.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ят за развитием ситуации. Они могут ужесточить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если не удастся останов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и если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превысит в среднем 800 в день.

Пандемия COVID-19 приводит к росту зависимости подростков от интернета и смартфонов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делам семьи и женщин среди 1 млн 270 тыс. учеников четвёртых классов начальных, первых классов средних и первых классов старших шко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озросла зависимость подростков от интернета и смартфонов. Это произошло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из-за массов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удалённого обучения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в опасности чрезмерной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мартфонов или интернета находятся 229 тыс. подростков. Это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что и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Однако 30 тыс. из них оказались в чрезмерной зависимости, что на 2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Из-за пандемии учащиеся проводят много времени за компьютерами и со смартфонами в руках, поскольку проводят дома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чем раньше, из-за жёст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этой связи министер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спе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мощи подросткам с тяжёлой зависимостью.

(RKI)

Джо Байден и Мун Чжэ Ин договорилис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23 мая официально завершился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в США. Подписанные двусторонни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весьма серьёзные, обширные и затрагивают интересы не тольк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этих стран. Вашингтон получил от Сеула обещание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ые СШ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мощности 4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а также гарантии того, что РК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следовать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у курсу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В обмен на это США сняли вс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развитие Южной Кореей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сфере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и, космоса, производства вакцины, а также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Американцы также оказ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ряд знаков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да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МИ возможность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отметить, что 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Джо Байден принял лучше, чем японско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С тревогой и надеждами

Личную встречу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с новым лидером США Джо Байденом,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21 мая,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ожидали с некоторой долей тревоги и в то же время надежды.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ранее уже дало понять, что ему далеко не все нравится в т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курсе, который заявил Джо Байден. Мун и его соратники хотят развивать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пытаются уговаривать (хотя совершенно безуспешно) Вашингтон смягчить подход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Источники в Белом доме США также не скрывали, что им не по душе мног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людей из ближайшего окружения Муна, где так и сквозила "прить" по част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еул не хотел быть втянутым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желая развивать хорошие и выг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как с Вашингтоном, так и Пекином. Отсюда и завуалированные отказы южнокорейцев примкнуть к разного рода инициативам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по сдерживанию Китая как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ак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сферах.

Кроме того,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до сих пор имеет свои счета с Японией и не особо торопилась следовать призывам США наладить отношения с Токио, возобновив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как на двустороннем уровне, так и в рамках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квазисоюза "Вашингтон – Сеул – Токио", который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ют СШ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Южной Корее без радости вспоминают свои отношения с США в период правления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когда связи с главны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союзником оказались под угрозой, а само поведение руководства США воспринималось как абсолютный эгоизм и игнорирование интересов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включая Южную Корею. А потому были надежды, что личная встреча Мун Чжэ Ина и Джо Байдена уладит все и внесет ясность по поводу дальнейших перспекти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линии на мног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з Вашингтона с любовью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рилета Муна в США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царила почти праздничная атмосфера, а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постаралась наполнить программу визита пусть и не такими значительными, но безусловно приятными южнокорейцам знаками и событиями. Так, Мун Чжэ Ин стал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США иностранным лидером, которы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градой США американца. Награжденным стал ветеран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г., в которой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спасли Южную Корею о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торжения.

В ходе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Джо Байден сообщил, что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ША по КНДР назначен бывший посол СШ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н Ким, который вообще-то родился в Корее и жил там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ка не переехал в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с родителями. Кима в Южной Корее очень хорошо знают, он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корейски и в целом южане считают его как минимум "не чужим".

Далее, Байден прямо и откровенно высказался по поводу ряда инцидентов с нападениями в США на азиатов, в ходе которых пострадали в том числе и корейцы, что вызвало широ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резонанс в СМИ и среди народа Южной Кореи. "Честно говоря, мне, как американцу, стыдно было узнать, что такие инциденты у нас имели место. Я обещаю вам, господин Мун, что мы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это не повторилось. Я вам это обещаю!",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США перед камерами СМИ.

Американский лидер,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й почтенный возраст, упомянул про популярность среди молодежи США корейской эстрадной музыки K-POP, а также вос-

хитился успехам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в частности фильмом "Паразиты", которы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лучил четыре Оскара, а также недавний успех другого корейского фильма "Минари", где актриса Юн Ё Чжон также получила Оскара за лучшую роль второго плана.

Судя по публикация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им удалось "обставить" японцев, с кем у Сеула особые счеты.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подобных оценок стали подробности обеда Джо Байдена и Мун Чжэ Ина в сравнении с деталями совместной трапезы президента США с японски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Ёсихидэ Суга, но СМИ РК интерпретировали это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реванш": хотя Япония опередила Южную Корею, сумев раньше устроить саммит с но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но южан в Вашингтоне лучше приняли.

В общем, американцы постарались и явно преуспели в том, чтобы атмосфера была дл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омфортной и полной приятных сюрпризов.

А если к делу

Но это все, безусловно, мелочи, тогда как гла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саммита заключались в подписанных соглашениях, основные моменты которых были отражены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Байдена и Мун Чжэ Ина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Лидеры США и РК общались почти три часа, что на час больше, чем это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токолом первоначально. Такую длительность переговоров эксперты объяснили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накопившихся вопросов и значительным объемом затронутых сфер.

Расхождения между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ей, о которых мы говорили в самом начале, никуда не делись, но, если судить по итоговому заявлению и прочим документам,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старались изверну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 обходя "острые углы", учитывая позиции друг друга и при этом желая выставить все так, чтобы двусторонний альянс выглядел "железобетонным" - именно так его часто характеризуют для СМ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США и РК.

Визит Мун Чжэ Ина в США оказался весьма успешным для обеих сторон, причем южнокорейцы, если верить их впечатлениям, вернулись "к старым добрым временам", когда отношения с США были безоблачными, ну ил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так выглядели снаружи, а любые проблемы решались без выноса сора из избы. Мун Чжэ Ин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итоги саммита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Это был самый лучший визит, результаты — также самые высшие", добавив, что Байден "сделал и ряд неожиданных, но очень приятных подарков для Кореи". Если же анализировать итоги поездки Муна в США в целом, то обе стороны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немало друг от друга, устроив своего род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размен одних "активов" на другие с немалой выгодой для себя.

От ракет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о вакцины и климата

Так как обсуждало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ного самых разноплано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о мы лишь схематично обрисуем то,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США и РК, пояснив, в чем именно заключались уступки друг друг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мог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значительные споры и разногласия, Мун и Байден решили несколько "задвинуть", понимая, что он может испортить всю атмосферу. В итоге, по КНДР были сделаны отбечаемые и приемлемые для обеих сторон заявления. Стороны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их двусторонний альянс по-прежнему нерушим и крепок. Мун отдельно подчеркнул: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у нас никаких разногласий нет", что, впрочем, имело скорее обратный эффект: раз про это специально приходится говорить, значит на самом деле что-то не так.

Символическими, но важными для Сеула пассажами заявления стали моменты о том, что в основу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будут ставиться дипломатия, переговоры, а добиваться они будут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не тольк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ступили вакцины Кови-Вак и ЭпиВакКорона

Спектр вакцин, поставленных в регион, расширен. Помимо Спутника V (ГамКовидВак), теперь на островах есть препараты от завода Вектор – ЭпиВакКорона и от завода имени Чумакова – КовиВак. Все вакцины прошли клин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и рекомендованы для иммунизации населения против особо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Ране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обеспечить бесперебойные поставки вакцины в субъект.

ГамКовидВак, ЭпиВакКорона и КовиВак – все три вакцины, разработанные в стране, теперь есть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данным разработчиков, для их изготовл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разные платформы, но по эффективности на организм они близки.

–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работы со Спутником V мы убедились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акцины для населения. Два других препарата расширяют линейку средств профилактики.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какая-то из них лучше. Различие только в том, что вакцины по-разному действуют на возбудителей вируса, при этом, не причиняя вред организму,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ла Тен.

Новые для Сахалина вакцины пришли пока небольшими партиями. ЭпиВакКорона – 810 доз, КовиВак – 780 доз. Также, как и ГамКовидВак, эти препараты двухкомпонентные, обеспечиваю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защиты организма – от 88 процентов.

– Минздрав РФ сейчас рассматривает новый порядок плановой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 только при наличии двух прививок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Пациент проходи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ПЦР-тестирование. В связи с длительным инкубационным периодом эта тактика не всегда результативна – в различ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страны продолжают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вспышки заболевания. Вакцинация поможет предотвратить эти риски для всех пациентов, поступающих в стационар,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ступившая вакцина будет распределена по медицинским учреждениям. –Поскольку первые партии небольшие по объему, охват территорий будет увеличиваться постепенно, по мере поступления.

Отмет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стается одним из регионов-лидеров по темпам вакцинации. На островах привито 30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 это 7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стране – 20 процентов.

Российские и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собрались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оруме экологи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не менее 50 процентов транспорта на островах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топливе. Чтобы мотивировать автовладельцев и бизнес,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ют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газомоторного и электриче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одород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али основными на конференции 20 мая. Фору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ходит во второй раз, но в этом году его статус повысился д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рупных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и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развернулась выставка экологи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ошли презентации газомотор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заряд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участников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 Это знак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От развития экологи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чистота воздуха, комфорт жизни и здоровье людей,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втовладельцы и бизнес, которые выбирают экологичный транспорт, пользуются всевозможными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озмещают до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своих авто.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часть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по автокредиту.

Предприятия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озвращают 70-9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на покупку экологичной техники. Бизнесу бесплат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земля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вых заправок. Возмещается до 90 процентов инвестиций в приобретение передвижных заправщиков. Компенсируются расходы на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автосервисов и газо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й.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добились федер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рынка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еречень субъектов, где формирование заправоч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оисходит в первоочередном порядке.

–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регион восточнее Урала, который вошел в федер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газомоторной ассоциации Василий Зинин. – Перечень не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расширять, но работа, проведенна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а высоко оценен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Ф. Теперь регион получил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газозаправоч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ряду с теми, что уже действуют.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няты меры и для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заправоч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тариф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снижен на 30 процентов. Прорабатываются механизмы «зеленого кредитования» на покупку электрокаров и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Пр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илья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ут предусматривать электрозаправки.

Действенны также некоторы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Органа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всех уровней, а также областным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нельзя приобретать новую технику, работающую на бензине и дизтопливе. А на конкурсах преимущества получают те подрядчики,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е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17 сахалинце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Правнуки Победителей»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подвело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ие к нем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около 9 тысяч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России и более 30 других стран мира.

Цель конкурса – сохранение семейной 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б участник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одов, тружениках тыла, узниках концентрационных лагерей и военнопленных через исследование их судеб на основании документов, хранящихся в открытых источниках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хивах и в личных семейных архивах. Его девиз – «От истории семьи - к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лся для обучающих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и дальнего зарубежья. Победителей определяли в категориях: 10-12 лет, 13-15 лет, 16-18 лет, а также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исторических факультетов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институ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одали 35 человек. Их работы были оценены в ходе обороч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были допущены 17 лучш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работ.

Побе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стали: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0 – 12 лет: Темербекова Софья, с. Углезаводск (Долин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3 – 15 лет: Никифорова Таисия, с. Восточное (Макаро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6 – 18 лет: Климова Светлана, с. Крабозаводское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 Хотя наши ребята и не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финального этапа, но их работы по отношению к личной семейной истории, по той работе, которые они провели, работая с архивами, с письмами, по крупицам восстанавливая образ прадеда-победителя, были достойны самой лучшей оценки,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Андрей Фугенфиров.

Напомни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курса выступает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гражданско-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Соорганизатором –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дил охинские семьи 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Почетные зна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мья,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получили четыре пары, отметившие золотую свадьбу и достойно воспитавшие двоих и более детей. Охинский район стал первым, где вручили новую региональную награду.

– Восхищаюсь семьями, которые счастливо прожили вместе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воспитали детей, а сейчас растят внуков и правнуков. Передают им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и традиции. Чтобы выразить особу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таким крепким сахалинским семьям,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учредить новый почетный знак,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ина Ивановна и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Якушин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еще в школе и через всю жизнь пронесли свою любовь. Супруги работали в нефтяной отрасли, оба имеют звания ветеранов труда.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во время Нефтегорской трагедии участвовал в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землетрясения. Семья ведет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 с молодости увлекаются плаванием, лыжными гонками. Глава семьи любит охоту и рыбалку, а жена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посвящает даче и трем любимым внукам.

В семье Александра Ивановича и Файрузы Габдрахимовны Евтуховых любовь, уважение и согласие царят 53 года.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и Тамара Павловна Петуховы вместе уже 55 лет, а Демьян Демьянович и Алина Георгиевна Рябовы – без малого 60 лет. Супруги считают, что в семье самое главное –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терпение и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Вместе с наградами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в размере 25 тысяч рублей. Планируется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ть почетными знаками около 100 островных семей.

Это уже третья региональная награда, предусмотренная за достойное выполнение родительских и семей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Многодетным сахалинкам, достойно

воспитавшим пятерых и более детей, вручается медаль «Материнская слава».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Родительская слава» награждают супругов, достойно воспитавших шестерых и более детей.

В Ох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градил также работник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получили фельдшер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ладимир Сорокоумов, медсестра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Любовь Светлова и старшая медсестра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Дыжидма Намжилова.

На дорог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бследуют проблемные люк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аботу начн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алее выявлять проблемные участки с техническими колодцами будут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 В мае мы прове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сахалинских дорог. Но жители часто жалуются на дефекты, которые образуются на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в местах установки люков. На некоторых участках выбоины достаточно глубокие. Поступим также, как с выявлением ям. Все проблемные люки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занести на цифровую карту и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устранить дефект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создадут актуальный реестр люков и установят их собственников, а затем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и волонтеров подробно обследуют участки проезжих частей.

Если люки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дорожных служб, дефекты оперативно устранят. В случае, когда у люков есть собственники –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е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 они должны будут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технические колодцы за свой счет. Посл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займутся подрядчики, обслуживающие тот или иной участок дороги.

Сообщения и фотографии с ямами и выбоинами, в том числе в местах установки люков,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могут оставлять на электронном ресурсе «Сахалин. Онлайн» в категории «Ненадлежащее содержание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https://сахалин.онлайн/>. А по ссылке: <https://map.сахалин.онлайн/> доступна интерактивная карта.

–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отзывчивость неравнодушны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этой работе. Это по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ускорить устранение дефектов, –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Олег Попов.

Отметим, параллельно работу по выявлению дефектов будут вести волонтеры и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Сахалинские проекты ГЧП представят инвесторам в Москв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готов на услов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редложить бизнесу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ЖКХ, энергетик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йдет 31 мая в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ГЧП (входит в группу ВЭБ.РФ)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России и КРДВ.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ены 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институты развития, крупнейшие финанс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частные инвесторы и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Вниманию инвесторов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свыше 90 объектов. В частности, регион планирует построить 5 школ на 5315 мест, 10 поликлиник,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и санаторный корпус. Большой портфель проектов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в сфере ЖКХ. Речь идет о модернизации систем тепло-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одоотвед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и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за счет инвесторов провести газификацию сел. Отде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заслуживают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мусорные полигоны, сортировочные и мусоросжигате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фильных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обсудят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инвесторами, ка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Сахалин имеет,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менения механизмов ГЧП, готов ли бизнес и финансиру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ать с этими проектами, какие существуют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 примене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концессии и и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е готовы оказать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силу своих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чению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2020 году регион вошел в ТОП-30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РФ.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за пять лет привлечь в сахалинскую экономику значите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средства. Запуск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и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требую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развития которой регион использует механиз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я и регистрация доступны по ссылке investsakhalin.ru. Аккредитация журналистов проводится до 17:00 28 мая по телефону: +7 (967) 196-27-51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n.zhdanova@erdc.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박병석 국회의장, 모스크바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고려인 동포와 간담회

고려인 대표들, 한국 이주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요청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3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구한말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위중 열사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자손 및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러시아에 계신 고려인 동포 16만여명이 당당히 러시아의 일원으로 서 주류사회 편입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의 질곡 속에서 러시아에 당당히 뿌리를 내린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고려인 동포와 대한민국의 관계, 그리고 동포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또한 원로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롭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앞서 키틸 총대주교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성공적인 러시아 방문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3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구한말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위중 열사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자손 및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국회)

재외동포재단, (사)벤처기업협회와 MOU 체결

- 한상 네트워크 및 벤처기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한상 네트워크 및 벤처기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곤)와 5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세계한상대회(재외동포재단 주관)와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총회((사)벤처기업협회 주관) 개최 관련 상호 협력 ▲해외 우수 한인벤처인 발굴 및 네트워크 공유 등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으로 국내외 우수 한인벤처기업인을 발굴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995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벤처기업의 권익보호 및 기업 간 상호교류,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 벤처 생태계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외정책 활동, 혁신형 창업 활성화와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온실 착공

농식품부, 알마티에 국산 기자재·기술과 인력 활용한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신북방 지역에 스마트팜 시스템 수출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24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1ha 규모의 시범온실을 착공했다고 5월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사업을 위해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간 업무협약(MOU)을 2020년 4월에 체결했으며, 스마트팜 관련 온실 시공·설계, 기자재, 시스템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K2 Agro Farm 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해 시범온실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K2 Agro Farm 컨소시엄은 카자흐에 1,720만불 수출계약을

수주한 나레트랜드를 주관으로, 팜스코, 태광뉴텍, 에이콘컴퍼니가 참여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착공한 시범온실은 적설·강우량이 많은 알마티 지역의 기후를 감안해 겨울 및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로 설계됐으며, 올해 10월에 완공돼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범온실에서 카자흐스탄 국민 주식인 토마토, 오이와 고부가가치 작목인 딸기를 재배해 우리 스마트팜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유통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온실에서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가 스마트팜 관련 작물의 생육모델 등을 실

증하고, 카자흐스탄 대학생, 현지 농업인이 우리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범온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데모온실 운영·관리 지원), 농림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 코트라(시장조사·마케팅 지원)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온실 착공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과 시스템 수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자흐스탄 내 시범온실을 적극 활용해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신북방 지역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독자위 4월 모니터링 요지

다양한 이슈를 발굴해 심층 분석, 대안 제시까지
경인WIDE 눈길



이재율 위원



김준혁 위원



김민준 위원



안은정 위원



김윤아 위원

전국 최다 '고구려유적 관리 부실' 지적 적절
진행형 세월호 7주기 폭넓은 보도 의미
사할린 귀국 동포 지원·서류 절차 개선

경인일보 4월 지면 평가 독자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재율(미래사회발전연구원 원장) 위원,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 김윤아(시각예술작가)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이달 독자위원들은 경인일보의 단독 취재 기획기사 [경인 WIDE]가 눈길을 끌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유행에 대한 보도는 불안을 지양하고 삶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율 위원은 "다양한 이슈를 발굴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공감을 주는 기사가 눈에 많이 띄었다"며 "특히 <자리 못 잡는 주소 체계> 이대로 괜찮나>(8일자 1·3면), <유적관리 부실 '고구려 역사' 휴대>(13일자 1·3면), <도내 박물관, 미술관 수장고 포화상태>(30일자 1·3면) 등 경인 WIDE 기획은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적절한 보도였다"고 말했다.

김준혁 위원도 <유적관리 부실 '고구려 역사' 휴대>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고구려 유적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유적만 63곳에 달하지만, 국립박물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며 "우리 고유의 문화가 왜곡 당하는 시점에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했다.

안은정 위원은 <자살률 지역을 보다> 기사가 지역사회 공동체 연결의 중요성을 드러낸 의미 있는 기사라고 평가했다. 안 위원은 "통계로써만 설명되지 않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지역사회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촘촘한 대안 마련의 절실함을 잘 제시했다"고 했다.

사할린에서 귀국한 동포의 신원 확인 과정의 개선점을 지적한 <직계비속 증명부터 난항... '서류에 발 묶인' 동포들>(2일자 5면) 기사는 공감대를 얻었다. 이 위원은 "사할린 귀국 동포들은 대부분 고령인 데다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 관계당국은 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절차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최전선 요양보호사 '정부 지원 외면'>(14일자 3면)은 돌봄 노동이 외면받는 현실을 사례와 지원 제도 개선 측면에서 잘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인 WIDE] <비대면 시대 고립되는 시각장애인>(19일자 1·3면)도 코로나19 와중에 철저히 배제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과 정

보화 교육 격차를 짚었다는 평이 있었다.

안 위원은 "다만 코로나19를 계속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는데, 유행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호한 기준으로 유행과 확산, 불안 오가는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기보다 위드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보완하는 기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조명한 기사들도 호평을 받았다.

안 위원은 "독포 신항의 세월호 선체 앞 추모식 사진 기사와 수원시 세월호 추모 주간, 4·16 민주시민주 교육원 개원 기사와 여전히 진행형인 사고 조사에 대한 내용과 지지부진한 법제화의 문제 등을 폭넓은 영역에서 보도해 의미가 깊었다"고 했다.

김준혁 위원도 "7년 전 수학여행을 가던 아이들이 국가의 잘못으로 깊은 바다에 가라앉았다.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위로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인일보가 올해에도 지면을 할애해 관련 기사를 보도해 독자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5·6·7·8일자 7면) 기획 기사는 보호소 안에서 겪었던 이주민들의 삶과 보호소에서 나온 뒤 겪는 어려움과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안 위원은 "보호라는 명목의 구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주민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청년 독자를 대표하는 김민준 위원은 [이슈&스토리] <지방의회법 제정> 왜 필요한가>(23일자 10면)를 인상 깊게 읽은 기사로 꼽았다.

김 위원은 "많은 이들이 국회의 중앙 정치에 집중하느라 지방자치에 관심을 덜 두는 편인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만큼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활동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인터뷰...공감] <초저예산 '인천스텔라' 만든 백승기 영화감독>(7일자 14면)도 "영화에 대한 열정이 거장 못지 않은 것도 재밌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매력적인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인상 깊었다"며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인천을 창작의 공간으로 삼았던 것 역시 눈여겨볼 지점이었다"고 했다.

김윤아 위원은 "이전 한익스프레스 참사와 인천 모텔 2개월 여아 뇌출혈 사건 등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을 끈기 있게 추적 보도한 점을 높게 산다"며 "후속 기사에 기존 보도된 내용을 충실하게 더 담아 준다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경인일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행사는 '육차브리'영화관 상영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리는 가운데 상호작용 게임, 경연대회, 활동교실, 도전 게임, 페이스 페인팅 등 흥미로운 많은 행사가 펼쳐진다.

해양과 바다의 폭풍인 데이비 존스 선장이 어린이들의 환상을 모아 사탕으로 교환해주며, 카리브해 해적들과 함께 어린이들은 환상의 바다에서 놀날리는 마법의 종이에 자기의 소원을 쓰는 행사도 있다.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주요 행사는 모험 만화영화 '7개 해양의 선장(77분 상영, 6세 이상 관람가)' 무료 관람이다.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Ярмарку фантазий"

1 июня "Сахалинское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рганизует праздник для детей "Ярмарка фантазий: Капитан семи морей"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ня защиты детей.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в 10:00.

На празднике вас ждут интерактивные игры, конкурсы, мастерские, квесты, аквагрим и еще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Капитан Дэйви Джонс, гроза морей и океанов, будет собирать детские фантазии в обмен на сладости. Вместе с пиратами Карибского моря дети запишут свои

желания на волшебные листочки, которые развеются в море фантазий. Ребят ожидает и главный сюрприз — бесплатный просмотр приключенческого мультфильма "Капитан семи морей" (77 мин., 6+)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사할린 주민들에게 '트리움프' 대공 미사일 시스템 전시

올해 초 사할린 지역 영공 수비로 전투 방어를 시작한 C-400 '트리움프(대승리)'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사할린에서 열리는 '육군-2021' 국제 군사기술포럼(IAF)의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C-400 '트리움프'는 모든 현대적, 장거리 항공 우주적 공격을 괴멸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장중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초음속)이다. 이 시스템은 장거리 400km까지 영공 목표물과 전술 탄도, 순항 미사일, 전술 비행기 및 전략적 항공기, 탄도 미사일 탄두의 움직임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다. 8월 말에 사할린 섬에서 열리는 '육군-2021' 군사기술 포럼 행사는 쿠릴열도의 쿠릴스크시와 유즈노쿠릴스크, 푸쉬스퇴 간에 비행장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군사 및 특수기술 장비, 총기, 사할린 지역 다른 군기관의 대표들과 군인들의 현대적 전투 장비체제들을 전시하고, 포럼 관객들에게는 흥미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스포츠 행사, 예술단의 공연도 진행한다고 동부 군사지구에서 전했다.

Сахалинцам покажут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й комплекс "Триумф"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й комплекс С-400 "Триумф", заступивший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по охране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нач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зрителя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Армия-2021" на Сахалине.

С-400 "Триумф" является российской зенитно-ракетной системой большой и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й для уничтожения всех современных 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редств 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ого напад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гиперзвуковых).

Комплекс может поражать аэродинамические цели на дальности до 400 км, а также тактически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цели, в том числе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самолёты тактической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авиации, маневрирующие боеголовк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мероприятия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Армия-2021" пройдут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в городах Курильск и Южно-Курильск.

Помимо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оружения, военной и специальной техники,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современной боевой экипировк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силовых ведом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рителям форум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ойдут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ВВ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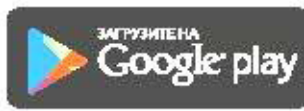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